

초등학교



다국어기획호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



2019년 다국어 기획호

특별해서 더 소중한 우리 자녀의 진로 설계하기

다문화국가의 미래를 열어 갈 우리 자녀들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서로 다른 국적과 인종, 민족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2018년 행정안전부 발표를 기준으로 18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한국 총인구의 3.6%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관습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계 시민'의 덕목은 앞으로의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이중 언어와 이중 문화는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유연성과 개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입니다.

한걸음씩 차근차근, 우리 자녀 진로 준비하기

교육부는 다문화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성숙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강점을 개발하고, 원격영상으로 다문화영역 롤모델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울림 원격영상 멘토링(mentoring.career.go.kr)'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에서도 교육청과 대학, 지자체가 협력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진로 상담과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또래집단과 다른 외모,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칫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무리하게 프로그램 참여를 강요하기보다 자발적인 의지와 호기심을 가질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 주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진로체험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기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접근하도록 지도해 주시되, 자녀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세요.



꼭꼭! 진로 정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정보 안내 동영상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진로·진학정보를 영상으로 제작·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과정, 자녀의 진로교육 정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외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매년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국어로 '우리아이 학교 보내기' 등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니 자녀의 진로·진학 지도에 참고하세요.

진로·진학정보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



차이와 다양성이 미래의 직업 세계에서는 큰 장점이 됩니다



지도에서 학부모님이 태어난 나라를 찾아 봅시다. 전통의상과 음식,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자녀가 학교에서 만나는 다른 다문화가정의 나라도 찾아보고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대화해 봅시다.

Q. 자녀의 진로·진학에 대해 가족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큼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같은 민족인 사람들끼리 가정을 이루더라도 생각의 차이로 인해 갈등을 종종 겪곤 합니다. 문화와 인식의 차이를 경험하는 것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에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학부모님과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란 자녀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란 학부모님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학부모님의 정체성이나 사고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개방된 자세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보세요.

Q. 집에서는 학부모의 모국어를,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쓰는 것이 자녀에게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중언어 화자(bilingual speaker)'라고 부릅니다. 학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 친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이 긴밀하게 이루어지면 이중언어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종이접기나 장난감 놀이,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 자녀는 부모의 모국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중언어 인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와의 건강한 관계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적·정서적 혼란을 극복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학부모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대화를 통해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충분히 표현해 주세요.

Q.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이중언어 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자녀들은 유년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지만 중도입국 학생들의 경우 언어 환경의 변화로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대인관계 형성과 학업 성취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은 한국어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모국어도 함께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이중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봅시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공동개발한 이중언어교재도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배포되어 학부모님과 자녀의 한국어 습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바일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이중언어교재' 검색)

Q. 자녀의 공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학교 공부만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진학과 진로에 대해 조언해 줄 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면 대학생 멘토링을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다문화학생 멘토링'은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1:1로 매칭하여 초·중·고등학교 생활 적응 및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나 우리 동네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가 자녀의 학교를 방문해 방과 후 또는 방학 동안 학습을 도와주며, 주당 20시간(방학 중에는 주당 40시간) 정도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학교생활 및 진로와 관련한 상담도 진행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들으며 자녀의 적성과 흥미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꼭꼭! 진로정보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보기

자녀에게 진로·진학이 처음이듯 학부모님에게도 부모라는 역할은 생애 처음 맞이하는 경험이지요. 처음은 누구나 어렵고 막막합니다. 각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 다문화가정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도움을 받아 보세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찾아봅시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https://www.liveinkorea.kr>) 바로가기 ▶

